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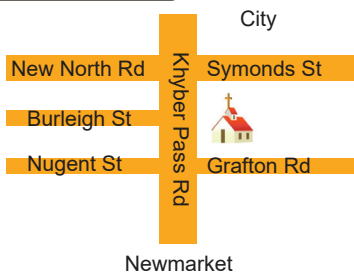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8월의 수요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친구' 입니다. 수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들려주실 메시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 권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권사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권사들은 함께하기 바랍니다.
3. 각 선교회 회장단들은 회원들의 형편을 잘 살피며 중보기도로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주신 주방봉사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5. 이태한 목사는 1기 담임사역 7년을 마치고 9월부터 3개월간 안식월을 갖고 2기 사역을 위한 준비와 재충전을 하고 12월에 돌아옵니다.
6.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월요기도회는 당분간 쉽니다.
7. 이상미사모(이태한목사) 어머니께서 지난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이태한목사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34호
2016년 8월 21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138:1-2

◎ 찬 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대표기도 최득수 집사

성경봉독 로마서 8:26-28

찬양대 찬양 주를 만나이다/
나무집사가 찬양대

설 교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이태한 목사

찬 송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정옥자권사(색소폰연주)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이지수 자매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이경재 집사

성경봉독 느헤미야 3장

설교 무너진 성벽 재건/
이성철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령의 능력안에 거하는 교회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도록.
2.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배려와 이해로 서로 섬기며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터키 정빌립 선교사 소식입니다.

모스크와 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라 많이 덥지만 나라의 사태로 인해 더위보다 더 무거운 여름입니다.

이곳은 정치적인 혼란속에 있으나 태풍의 눈이라고나 할까요 백성들안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적을 쳐내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뒷마무리를 하면서 반발에 대비한 행각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의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숨을 죽이고 현 정권에 순응 혹은 순종할 뿐 어떠한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눈치가 예민하여 통신시설이나 전달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예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통신에서 서로의 용어들을 매우 신중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앙카라와 이스탄불 그리고 이즈밀과 안탈라 등에서 큰 소란을 가져온 것이 전국민에게 경계심 내지는 공포감을 주는데는 큰 효과가 난듯 합니다. 그 이후 일사천리로 정권을 가진자들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못 사람들에게 별다른 큰 위협은 없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조심하고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아니라고도 못하는 뭐 그런 분위기 입니다. 전에 가을에 터키 방문을 계획하시는 듯 했는데 진행하시더라도 10월이후가 좋을 듯 합니다. 아직은 그 음산함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은 무난합니다. 지체를 간구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미국에 대학이 되어 이번 18일 저희결을 떠납니다. 부담되는 경제력이 거드 제목입니다.

선생님, 사모님을 비롯한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회사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 소식들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이스탄불에서 정성은올림

기도제목

1. 지도자들이 현사태(쿠데타)를 정권유지 차원으로 역이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2. 현 상황이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상황을 슬기롭게 이용하도록.

8월 교회일지

선교보고주일: 8월 7일(주일)
금요저녁기도회: 8월 12일(금요일)
선교회주관예배: 8월 31일(수요일)

8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차영철/이기중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지에 집사
다음 주일: 김병진 목사
다음 주일 청년부: 이에찬 형제
8월 31일 수요: 이기중 권사
8월 31일 애찬: 박영선 사모
9월 4일 주일: 고성일 장로
9월 4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